



[금융]
우리은행
금융지주사 재전환
04



Life '8K TV' 체험행사
[산업]
삼성전자
'8K TV' 체험행사
05
Includes an image of a Samsung QLED 8K TV.

2022년까지 11兆 투입... 지진·미세먼지·폭염 대응 강화

서울시 '안전도시 서울플랜' 발표 새로운 위협요인에 선제적 대응

“2022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초미세먼지(PM-2.5) 농도 18μg/m³.”

서울시가 서울 안전정책의 미래비전,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7일 발표했다.

안전도시 서울플랜은 5개년(2018~2022년)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다. 사회·인문학적·노동의 관점·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계획에는 1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6년 임현진 서울대 교수를 포함, 인문사회, 노동, 시설물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대표 19명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30여 차례 안전정책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시설물 관리와 인프라 보수·보강 위주였던 기존의 도시안전·관리 개념을



박원순 서울 시장. /손진영 기자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와 같은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기술도 안전분야에 새롭게 도입한다.

시는 2022년까지 4대 분야 총 70개 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후 서울 도심 일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연합뉴스

제를 추진한다. 4대 분야는 ▲미래 안전 위협에 선제적 대비 ▲안전약자 보호 ▲4차 산업기술 활용 ▲국제적 협력이다.

시는 노후 인프라, 지진, 풍수해, 미세먼지, 폭염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수립했다.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2020년까지 선제적으로 보수·보강, 성능개선

체계를 만든다. 또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를 달성한다.

초미세먼지는 2022년까지 20μg/m³에서 18μg/m³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안전 불평등도 해소한다. 노동자, 저소

득층,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한다. 노동자 권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중앙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안전 취약영역을 발굴, 시차원의 지원을 통해 노동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높인다.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학 R&D 허브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IoT 지능형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 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대응한다.

박원순 시장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은 서울시 안전정책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며 "그동안 서울시가 준비해 온 다양한 정책을 집대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향후 서울시는 재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고척스카이돔 개장 3주년... 관중 332만 돌파

3년간 436회 스포츠·문화행사 열려 시설개선 등 쾌적한 관람 위해 힘써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이 개장 3년 만에 누적관객 3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지난 3년간 436회의 스포츠·문화행사가 열렸고, 누적관객 332만명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고척 스카이돔은 넥센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의 홈구장이다. 3년간 프로야구 경기 279회가 개최됐다. 홈구단인 넥센히어로즈가 올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7만명이 넘는 홈 관중이 운집하기도 했다. 우천이나 폭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기를 즐길 수 있어 선수와 관중의 호응을 받았다.

콘서트 등 문화행사 때에는 2만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규모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스카이돔에서는 총 68회의 문화행사가 열렸다. 케이티 페리, 샘스미스 등 세계적



고척 스카이돔. /서울시

인 아티스트가 내한공연했다. 또 방탄소년단의 팬미팅과 콘서트, 워너원, 엑소 등 K-POP 스타들의 콘서트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공연문화 1번지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설공단은 개장 이후 관람석 연결좌석 개선, 쌍둥이 전광판 설치, 경기장내 안전시설 설치, 관람객 시야확보를 위한 경기장내 시설개선 등 시민들의 쾌적

한 관람을 위해 힘썼다.

고척 스카이돔은 구로구 경인로 430에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8만3476㎡ 규모로 완전돔 형태로 지어졌다. 야구장 규모는 국제공인 규격으로 건립됐다. 관중석은 1~4층 1만6813석이며, 콘서트 등 문화행사 때는 2만500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경기심야버스 72개 노선으로 대폭확대

경기도민의 야간시간대에 발이 되어줄 '경기심야버스'의 노선이 올 11월부터 대폭 확대 운영된다.

경기도는 '2018년도 경기심야버스 노선 확대계획'에 따라, 의정부→노원역(72-1), 안양→사당역(9-3) 등 14개 노선을 추가해 11월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경기심야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심야시간대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점 기준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첫차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민선 7기 교통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에 맞춰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을 자가용 보다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 9월부터 시군과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 막차 운송수익률, 심야운행 횟수 계획, 이용객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6개 시군 8개 업체 14개의 추가 운행노선을 확

정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의정부→노원역(72-1, 12-3), 안양→사당역(9-3, 11-3, 11-5), 의정부→흥죽산단(8), 용인→강남역(5001-1), 의정부→별내신도시(1), 포천→청량리(3200), 안산→여의도(5609), 부천→목동(98), 의정부→수유역(10-1), 의정부→도봉역(10-2) 등이 해당된다.

이와 동시에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서울 양재역을 오고가는 3100번의 심야버스 노선을 기존 2회 운영에서 3회로 증편 운행하고 이에 따라 강남역 15개, 잠실·강변역 12개, 서울역 9개, 청량리 6개, 여의도 4개, 사당역 8개, 종로·광화문 1개, 영등포 1개, 수유역 3개, 기타 13개 등 72개의 심야버스 운행노선을 운행하게 됐다.

이들 노선에는 기점기준 23시 이후 심야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며, 특히 새벽 3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첫차 운행 전까지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통시장 현장행보 나서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물가비상, 가계소득 감소, 대기업 시장잠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전통시장 현장행보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파주 금촌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실제 물가 실태와 서민경제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인근 금촌농협으로 이동해 최중환 파주시장, 이충

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경기 북부권역 시군 상인회장 등 40여명의 상인 및 관계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든다.

이 지사는 이 자리를 통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민선 7기 경기도의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할 방침으로 이번 현장방문은 실제 상인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담은 '현장 밀착형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행정의 연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월 17일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을 살피고 있다. /경기도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 17일 수원 영동시장과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

'Art & VR'... 예술에 첨단 기술을 더하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예술분야와 첨단 기술인 VR/AR을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도는 지난 6일 도내 VR/AR 기업과 국내 아티스트로 구성된 10개 팀과 협약을 맺고 3개월 동안 제작지원, 멘토링 등 개발과정을 지원해주는 'Art & VR'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VR/AR 개발자와 문화예술인이 한 팀을 이뤄 참여하며 총 10개 팀에 2억 5천만 원(팀당 약2천~3천만 원)의 개발비가 지원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 멘토링과 워크숍 등 교육프로그램부터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전시까지 종합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예술분야 각 창작집단과 VRAR협약식. /경기도

적 지원을 받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과 VR/AR 기술의 융합으로 미래 콘텐츠 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김승열 기자